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3, No. 129, pp.363-403
<https://doi.org/10.29212/mh.2023..129.363>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정유재란기 泗川 전투 재검토

- 패전 원인과 영향을 중심으로 -

문형준 | 한양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 목 차
1. 서론
 2. 조명연합군의 사로병진 작전과 사천
 3. 전투의 전개
 4. 사천 전투의 패인 및 영향
 5. 결론

초 록 본 연구는 정유재란 막바지인 1598년에 벌어졌던 사천 전투를 패전 원인과 영향에 중점을 두고 재검토해서 구체적인 실상을 파악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전투의 재구성과 임진전쟁의 실상을 규명하고자 했다.

정유재란 초기의 일본군 공세를 저지하고 반격에 나선 조명연합군은 울산을 공격했지만 실패했다. 이에 양호는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사로병진 작전을 입안했고, 사천이 작전목표 가운데 하나로 선정되었다. 일본군은 1597년 이곳을 요새화했고, 시마즈 요시히로가 이끄는 1만 5천 명의 병력이 오

늘날의 선진리왜성인 사천왜성을 중심으로 주둔하고 있었다.

1598년 9월 동일원의 지휘하는 2만 9천의 조명연합군은 진격을 개시했고, 지성들을 함락하며 사천왜성에 육박했다. 처음에는 조명연합군이 우세했지만 화약 폭발사고로 인해 진영에 혼란이 발생했고, 이 틈을 놓치지 않은 일본군의 역습에 명군이 많은 사상자를 내면서 패주하게 되었다.

비록 화약폭발 사고가 패전의 결정적으로 작용하긴 했지만, 조명연합군에게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요새화된 왜성을 공격하기에는 조명연합군의 전력이 충분하지 않았으며, 보급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혼합군으로 구성된 명군의 결속력은 약했으며, 북병으로 구성된 기병은 공성전에 적합한 병종이 아니었다. 반면 일본군은 최대한 전력을 보존하면서 노련하게 조명연합군을 상대했다.

사천 전투의 패전 후 명군의 전투의지는 사라졌다. 그런 점에서 사천 전투는 정유재란 막바지에 명의 입장을 바꾼 결정적 전투였다.

주제어 : 정유재란, 사천, 선진리왜성, 사로병진작전, 조명연합군

(원고투고일 : 2023. 10. 9, 심사수정일 : 2023. 11. 12, 게재확정일 : 2023. 11. 16.)

1. 서론

1598년(선조 31년) 조명연합군이 벌인 사로병진 작전은 임진 전쟁 막바지에 벌어진 대규모 군사작전이었다. 조명연합군이 육로 3방향과 해로 1방향에서 동시에 진격하여 남해안에 산개한 일본군을 개별적으로 격파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작전은 泗川 전투에서 조명연합군이 패배하면서 실패로 돌아갔다.

기존의 사로병진 작전과 관련한 연구들은 대부분 이순신의 조선수군이 서로군과 합동작전을 벌였던 순천 왜교성 전투에 대한 분석에 치중하는 측면이 있었다.¹⁾ 하지만 왜교성 전투에 비해 크게 주목받지는 못하였지만, 조명연합군이 실제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며, 작전 실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던 전투는 사천 전투였다.²⁾ 뿐만 아니라 사천 전투는 명군이 전쟁수행 의지를 상실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에 따라 전쟁의 전개가 바뀌는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전사적 중요성이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사천 전투에 관한 적지 않은 연구가 선행되었고, 이

1) 趙浚來, “정유재란과 順天 倭橋城戰”, 『아시아문화』 12호(2003):213-237; “정유재란과 順天倭城論 재검토”, 『문화사학』 27호(2007):827-852; 이육, “순천 왜교성 전투와 조선민중의 동향”, 『한국사학보』 54호(2014):191-219; 이민웅, “朝·明 聯合艦隊의 형성과 露梁海戰 경과”, 『역사학보』 178호(2003):83-112; 崔斗煥, “壬辰倭亂 時期 朝明聯合軍 研究”, 경상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1.

2) 임진왜란을 통틀어 사천에서 주목할 만한 격전은 2번 벌어졌다. 첫 번째는 1592년 5월 29일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과 일본 수군 사이에 벌어진 사천포 해전이고, 두 번째는 1598년 9월 18일부터 10월 1일까지 사로병진 작전 기간에 사천 일대에서 벌어진 전투이다. 본 발표문에서 다루는 사천 전투는 두 번째 전투이다. 사천(왜)성 전투라고도 지칭되지만, 후술하듯이 1597년 9월 19일부터 사천 일대에서 전투가 벌어졌기 때문에 사천 전투로 칭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를 통해 전투의 전개에 대해서는 개괄적으로 정리가 이루어졌다.³⁾ 그러나 패전의 원인에 대해서는 초전의 승리에 명군 사령관 동일원이 전황을 안일하게 판단했으며, 그 과정에서 적정(敵情) 판단에 실패했다는 정도의 단편적인 분석에 그쳤다. 또한 패전의 영향에 대해서도 사로병진 작전의 실패와 노량해전의 변수가 되었다는 정도에 그쳤다.

그러나 사천 전투는 조선을 무대로 조선과 명, 두 나라의 기획과 준비 아래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다는 점에서 임진왜란의 국제적 성격을 잘 보여줄 뿐만 아니라, 전개 및 전투의 파장을 살핀다면 참전국들이 저마다 가진 입장과 그들이 처한 현실을 여실히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먼저 정유재란의 전황 및 사천의 전략적 가치를 분석함으로써 이 일대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된 상황을 설명하고, 조·명·일의 제반 사료를 통해 전투의 전개 양상을 재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단편적인 수준에서 언급되었던 패전의 원인에 대해서도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밝혀내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사천 전투를 계기로 명군의 전쟁 수

3) 가장 먼저 일제강점기에 진행된 일본 군부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은 주로 일본군의 활약과 전술적 성공에 초점을 맞추고 일본 측 기록을 근거로 전투의 전개를 정리하면서 시마즈 요시히로가 이끄는 일본군의 활약을 강조했다(參謀本部 編, 『日本戰史 朝鮮役』(全3卷) 東京: 偕行社, 1924) 한국에서는 이형석의 연구서(이형석, 『壬辰戰亂史』, 서울: 임진전란사건행위위원회, 1976)를 통해 개괄적으로 정리되었고, 이어서 다음과 같은 연구 들이 전쟁의 상황과 전투의 재구성을 시도했다. 李章熙·成大慶·申解淳, “壬辰倭亂時 泗川戰鬪와 그 戰跡地 調査”, 『軍史』 19호(1989): 156-185; 村井章介, “島津史料로 본 泗川戰鬪”, 『남명학연구』 8호(1998): 181-204; 이상훈, “정유재란 시 사천지역의 전투와 조명군중의 조성”, 『한국중세사연구』 20호(2006):263-296; 孫衛國, “董一元與泗川之役略考”, 『新亞學報』 34(2017): 165-212. 그 외에 중국학계에서는 쑤웨이이가 3국의 사료를 토대로 사천 전투의 각종 異說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 孫衛國, “董一元與泗川之役略考”, 『新亞學報』 34(2017):231-258.

행 의지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이것이 이후 전쟁의 전개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조선 측 기록 외에도, 일본 및 명 3국의 기록을 고루 검토했다.⁴⁾ 사천 전투의 전개에 관한 기본적인 접근은 조선 측의 연대기 사료를 통해서 가능하겠지만, 세부적인 사항 및 교차검증을 위해서는 명 측과 일본 측의 사료들을 동시에 살펴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중국과 일본의 사료를 검토하였다. 우선 명 측 사료로는 정사인 『명사(明史)』와 『명실록(明實錄)』 외에 시간적으로 가까운 시기에 작성된 제갈원성(諸葛元聲)의 『양조평양록(兩朝平攘錄)』과 모서징(茅瑞徵)의 『만력삼대정고(萬曆三大征考)』 등을 활용하였다.⁵⁾ 일본 측 사료로는 시마즈 요시히로의 영지였던 사쓰마[薩摩] 번에서 작성된 가와카미 히사쿠니[川上久國], 오시게 헤이로쿠[大重平六], 후치노베 모토자네[淵辺元真] 등의 회고록[覺書]을 포함하여 『정한록(征韓錄)』, 『도진국사(島津国史)』, 에도시대 후기에 선행 문헌을 편년체로 편집한 『정한위략(征韓偉略)』 등을 참고하였다.⁶⁾

4) 조선 측 사료의 해제는 한일문화교류기금·동북아역사재단 엮음, 『임진왜란과 동아시아세계의 변동』, 서울: 경인문화사, 2010, pp.393~457을 참조.

5) 임진왜란 직후에 전란 과정을 기술한 사료들이다. 영인본 자료의 해제 및 원문은 北京大學朝鮮文化研究所, 中國社會科學院中國邊疆史地研究中心 主編, 『壬辰之役史料匯輯(下)』, 서울:국학자료원, 1992를 참고하였다.

6) 가와카미 히사쿠니, 오시게 헤이로쿠, 후치노베 모토자네 등은 모두 정유재란기 시마즈 가문을 따라 조선에 왔던 인물들로, 이들이 작성한 회고록[覺書]들은 『정한록』을 비롯한 시마즈 가문 관련 기록의 편찬에 이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사료는 北島万次, 『豊臣秀吉朝鮮侵略關係史料集成 3 一五九六~一五九八年』, 東京: 平凡社, 2017; 東郷吉太郎 編, 『泗川新寨戰捷之偉蹟』, 東京: 薩藩史料調査會, 1918; 續群書類從完成會, 『續群書類從(第20輯下)』, 東京: 續群書類從完成會, 1923에 수록되어 있다. 해당 사료들의 해제는 특기는 최관·김시덕, 『임진왜란 관련 일본문헌 해제-근세편』, 서울: 도서출판 문, 2010, pp.145~166; 김광옥, “일본 에도시대 임진왜란 기록물에 대한 연구-島津氏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27호 (2006):1-32 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임진왜란과 관련된 사료들은 당사자 위주의 일방적인 기술이 종종 이루어졌는데, 특히 일본 측 사료들은 계량적인 사안들에서 거의 믿을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⁷⁾ 하지만 어느 한 쪽의 사료만으로는 알 수 없는 당사자의 내부 사정과 인식을 추측할 수 있는 단서라는 점에서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 이를 종합하여 당사자의 의도를 살피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사천 전투라는 특정 사건에 대한 규명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자국 중심의 서술을 극복하고 임진전쟁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2. 조명연합군의 사로병진 작전과 사천

가. 정유재란의 전개와 사로병진 작전

1596년 9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에 대한 재침을 선언하면서 정유재란이 발발했다.⁸⁾ 일본군은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를 필두로 1597년 1월부터 도해했고⁹⁾, 명군은 1597년 5월 8일에 副總兵 楊元, 6월 14일에는 遊擊 吳惟忠이 이끄는 병력이 한성에 도착했다.¹⁰⁾ 그러나 본격적인 군사적 충돌은 6월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조선은 명군의 행동과는 별개로 수군을 동원하여 일본

7) 가령 후치노베 모토히사네는 육지의 3로군이 모두 50만 명이고, 그 중 중로군만 20만 명이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중로군 숫자만으로도 실제 4로군 전체 조명연합군의 2배가량 되는 숫자이다(續群書類從完成會, 1923, pp.366~367).

8) 『宣祖修正實錄』卷30, 宣祖 29年 9月 1日 甲午. “朝鮮有四大罪, 王子放還後, 迄不來謝, 使臣必以卑官, 苟充入送. 爾乃小邦, 自前侮我, 歲貢不修, 朝聘不至. 且冊使逃還, 皆汝國所爲.”

9) 『宣祖實錄』卷84, 宣祖 30年 1月 21日 壬子.

10) 『宣祖實錄』卷88, 宣祖 30年 5月 8日 戊戌; 卷89, 宣祖 30年 6月 14日 癸酉.

군을 견제하려고 시도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¹¹⁾

실망한 조선 조정은 수군통제사 원군을 강하게 질책하며 일본군을 공격할 것을 독려했지만, 되려 7월 16일 칠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이 일본 수군에게 전멸당했다.¹²⁾ 조선 수군이 사라지면서 일본군은 수륙 양면으로 전라도 지역을 공격할 수 있게 되었고, 이들은 살육과 약탈을 자행하며 진군했다.¹³⁾ 8월 16일 일본군은 남원성을 함락시켰고, 8월 19일에는 명군 유격 진우충이 버리고 도주한 전주를 점령했다.¹⁴⁾

이런 일본군의 기세는 조명연합군을 위축시켰고, 欽差提督南北官兵禦倭總兵官 後軍都督府都督同知(이하 提督으로 약칭) 麻貴는 서울을 포기하고 수비선을 압록강으로 물리려는 의사를 비치기도 했다.¹⁵⁾ 그러나 欽差經理朝鮮軍務 都察院右僉都御史(이하 經理로 약칭) 楊鎬는 한성으로 와서 마귀의 소극적인 행위를 질타하고, 병력을 파견하여 북상하는 일본군을 상대로 전투를 벌이도록 했다.¹⁶⁾ 직산에서 교전 끝에 일본군이 물러나고, 9월 16일에는 조선 수군이 명량 해전의 승리로 일본군의 서해진출을 저지하는데 성공했다.¹⁷⁾

일본군은 다시 북상을 시도하는 대신 西生浦에서부터 順天에 이르는 지역에 倭城을 쌓고 한반도 남부에 장기 주둔할 계획을 세웠다.¹⁸⁾ 이에 맞서 조명연합군은 1597년 말에 공세로 전환, 가토가 이끄는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던 울산을 공격했다.¹⁹⁾ 일

11) 『宣祖實錄』 卷89, 宣祖 30年 6月 14日 癸酉.

12) 『宣祖實錄』 卷90, 宣祖 30年 7月 10日 己亥; 22日 辛亥.

13) 이민웅, 『임진왜란 해전사』, 서울: 청어람미디어, 2004, pp.210~213.

14) 『亂中雜錄』 3 丁酉年 8月 16日; 8月 17日; 8月 19日.

15) 『明史』 卷320, 「列傳」 第208 「朝鮮列傳」.

16) 『宣祖修正實錄』 卷31, 宣祖 30年 9月 1日 己丑.

17) 이민웅, 2004, p.234.

18) 『宣祖實錄』 卷95, 宣祖 30年 12月 3日 己未.

19) 『懲毖錄』 卷2, “十二月, 楊經理·麻提督, 領騎·步兵數萬, 下慶尙道, 進攻蔚山賊營.”

본군은 도산성으로 후퇴하여 수성전으로 대응했고, 조명연합군은 도산성을 포위공격 했지만 함락하지 못했고, 도리어 일본군의 구원병이 울산에 도착해 1598년 1월 포위를 풀고 철수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사상자를 냈다.²⁰⁾

비록 도산성 공격에는 실패했지만, 조명연합군은 일본군을 상대로 싸울 전의를 잃지는 않았다. 양호는 일본군을 섬멸하기 위해 1598년 2월 2일 새로운 작전을 입안했다.²¹⁾ 울산성 전투에서 조명연합군은 소수 병력으로 가토를 지원하려는 일본군을 차단하고자 시도하였지만, 실패한 경험이 있었다.²²⁾ 이때의 실패를 바탕으로 양호는 조선이 거리가 멀고 산천이 險阻해 병력을 한 군데 취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그는 10만 이상의 대군을 동원하되, 이를 육군 3路와 수로까지 합해 도합 4路로 나누어 육군 3로는 양남 지방에서 일본군의 주요 거점을 동시에 공격해서 일본군이 서로 구원하지 못하게 하고, 수군이 일본군의 퇴로를 차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²³⁾ 서로군은 순천, 동로군은 울산,

20) 이상훈, 『전략전술의 한국사-국가전략에서 도하전까지』, 서울: 푸른역사, 2014, pp.220~249.

21) 김경태는 양호가 울산성 공격이 실패로 끝나자 대안으로 강화교섭을 들고 왔으며, 양호의 탄핵으로 인해 강화노선이 초기화되면서 사로병진 작전이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았다(김경태, “임진전쟁기 강화교섭 연구”,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4, pp.232~242). 그러나 양호가 일본군의 섬멸을 목표로 한 사로병진 작전을 구상했기 때문에, 양호의 강화교섭이 명군 지휘부의 태도가 변했다는 증거가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양호는 강화교섭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고니시 유키나가와 심유경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했으며, 울산성 공격 실패로 인해 “싸움으로는 일이 끝나지 않을 것이니, 羈縻策이 제일이다”는 의논이 어지럽게 일어나 軍情이 소란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보이기도 했다(『宣祖實錄』 卷 101, 宣祖 31年 6月 20日 癸酉).

22) 『明神宗實錄』 卷317, 萬曆 25年 12月 30日 丁亥. “專攻清正, 恐行長自金山來援, 令中協兵馬, 近宜城, 東援兩協, 西扼援倭, 又于三協中, 摘馬兵千五百, 與朝鮮合營, 由天安·全州·南原而下, 大張旗鼓, 詐攻順天等處, 以牽行長.”

23) 『宣祖實錄』 卷97, 宣祖 31年 2月 2日 丁巳; 中野等, 『秀吉의 軍令と大陸侵攻』, 東京: 吉川弘文館, 2006, p.360.

중로군이 사천을 공격하고 수로군이 퇴로를 막기로 최종적으로 입안되었고, 이 작전이 欽差總督薊遼保定等處軍務 經略禦倭兼理糧餉 兵部尙書兼都察院右副都御史(이하 經略으로 약칭) 邢玠의 동의를 거쳐 실행되게 되었다.²⁴⁾ 이것이 이른바 명군에 의해 주도된 사로병진 작전 계획이다.

2월 3일부터 조명연합 4로군이 작전에 따라 경상도와 전라도의 집결지에 배치되기 시작했고, 여기에 명나라 본국으로부터 수군을 포함한 병력이 추가로 파견되었다.²⁵⁾ 그 결과 조명연합군은 사로병진 작전 개시를 위한 10여만의 병력을 모으는데 성공했다.

한편, 처음 계획과 달리 1598년 작전 준비 기간 중에 인선의 변경이 이루어졌다. 작전을 세웠던 경리 양호는 울산성 전투 결과에 대한 허위보고로 인해 主事 丁應泰의 탄핵을 받아 萬世德으로 교체되었고, 원래 중로군을 맡기로 계획되어 있었던 李如梅는 그가 요동에서 전투 도중 전사한 형 李如松을 대신해서 요동에 부임하게 되면서 欽差提督中路禦倭總兵 中軍都督府左都督 太子太保 董一元으로 교체되었다.²⁶⁾ 그 결과, 작전을 입안했던 양호 대신 경략 형개가 작전을 총괄하고, 동일원이 이어매를 대

24) 『武備志』에는 이 작전의 구상이 형개의 의도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작전이 입안된 시점은 1598년 2월이었으며, 이덕형에게 직접 작전의 구상과 실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언급하고 있는 인물은 양호였다. 따라서 양호의 구상이 형개의 동의를 얻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武備志』 卷239, 「朝鮮考」; 『宣祖實錄』 卷97, 宣祖 31年 2月 2日 丁巳).

25) 『宣祖實錄』 卷97, 宣祖 31年 2月 3日 戊午; 卷98, 宣祖 31年 3月 29日 甲寅. 3월 29일자로 양호가 병사를 집결지에 파견하고 나서 올린 자문에 의하면 명나라 본국에서 아직 조선에 도착하지 않은 병력의 규모는 26,100여 명이었다.

26) 『明史』 卷259, 「列傳」 第147 楊鎬列傳; 『明神宗實錄』 卷321, 萬曆 26年 4月 17日 辛未. 董一元은 대대로 무인이었던 가문 출신으로, 부친 董陽은 宣府游擊將軍으로 활약하다 전사했다. 동일원 역시 薊鎮游擊將軍으로 북방 민족 격퇴에 공을 세웠다. 병으로 귀향했으나 정유재란에 다시 참전하게 되었다(『明史』 卷239, 「列傳」 第127 董一元列傳).

신해서 중로군의 지휘를 맡아 사천 지역을 공격하게 되었다.²⁷⁾ 그러나 이러한 인선의 교체는 사로병진 작전의 실행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는 아니었고, 9월 중순부터 일본군의 섬멸을 목표로 한 사로병진 작전이 실행됨에 따라 목표지인 순천·사천·울산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다.²⁸⁾

나. 사천의 전략적 가치

1597년 북상을 멈추고 남하한 일본군은 사천, 남해, 양산, 부산, 울산, 순천 등 주요 거점들에 왜성을 구축했다.²⁹⁾ 앞서 서술했듯이 조명연합군은 1597년 말 이들 가운데 울산을 공격했었는데, 사로병진 작전의 대상지역으로는 이미 공격에 실패했던 울산과 함께 순천과 사천이 선택되었다. 그 중 사천을 조명연합군이 공격 목표로 선정한 이유는 지리적 입지와 이를 토대로 계산된 전략적 요인 때문이었다.

지리적 입지를 보면 사천은 전라도로 통하는 진주와 직결되는 요충지로서 임진왜란 이전부터 왜구를 상대하는 최남방 요해지[極南要害之地]였고, 사천 전투 이전에도 여러 번 교전이 벌어졌던 곳이다.³⁰⁾ 임진왜란기에는 주로 진주 쪽으로 진격하는 일본

27) 만세덕이 양호의 후임으로 임명되었지만, 그가 조선에 들어온 것은 사로병진 작전이 실패로 끝나고 나서도 한참 뒤인 11월 25일이었다(『宣祖實錄』 卷106, 宣祖 31年 11月 25日 丙午).

28) 기존의 연구에서는 사로병진 작전의 개시에 관하여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병사로 인한 일본군의 철수와 이를 추격하기 위한 작전으로 서술하기도 하였다(기타지마 만지(北島万次), 김유성·이민웅 옮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침략』, 서울: 경인문화사, 2008, pp.241~242). 그러나 이는 시간적 우연에 따른 인과관계의 혼동이라고 생각된다. 조명연합군은 계속되는 정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히데요시의 사망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였다. 실제로 선조와 參政 王士琦의 대화에서 두 사람은 히데요시 사망설에 대해 믿을 소리가 못 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宣祖實錄』 卷103, 宣祖 31年 8月 17日 庚午).

29) 北島万次, 2017, p.774.

군과 조선군의 전투가 벌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정유재란기 일본군은 사천지역을 대대적으로 요새화하였다. 일본군은 기존에 있었던 사천 읍성과는 별도로 히데요시의 지시에 따라 사천 읍성 서남쪽에 왜성을 신축하고 요새화했다. 모리 요시나리[森可成], 조소카베 모토치카[長宗我部 元親], 시마즈 도요히사[島津豊久], 나카가와 히데나리[中川秀成], 아키즈키 다네나가[秋月種長], 다카하시 모토타네[高橋元種] 등이 축성을 담당했고, 12월에 거의 완성한 성을 시마즈 요시히로에게 인도했다.³¹⁾ 이곳에 주둔한 이후 일본군은 인근 지역들을 약탈하며 조명연합군과 교전을 벌였다.³²⁾

이때 새롭게 축조된 왜성은 오늘날의 선진리왜성, 즉 사천왜성으로, 명 측 사료에는 기존의 故館, 즉 사천읍성과 구별하여 新塞로 기술된 곳이다.³³⁾ 이 성은 고려시대에 축성된 토성인 通洋倉城, 즉 통양성을 근간으로 쌓은 성으로, 전체 규모는 사방 500m 정도였지만 현재 남아있는 부분은 동서 250m, 남북 200m 정도이다. 여타 왜성과 마찬가지로 중심부에 天守臺를 갖추었으며, 주곽은 모두 석축이었다. 통양성의 유구를 사용해서 축성했기 때문에 광대한 외곽선을 보유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³⁴⁾

30)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1, 慶尙道 泗川縣.

31) 太田秀春, 2019, “사천왜성을 통해 본 한일관계: 왜성에서 船津공원으로”, 『처음 읽는 정유재란 1597』, 서울: 푸른역사, p.333.

32) 이상훈, 2006, pp.272~273.

33) 일본군은 사천읍성을 舊城·古館으로 불렀다. 시마즈는 1597년 10월부터 2개월 정도 사천읍성을 본진삼아 주둔했다(太田秀春, 2019, pp.338). 그리고 『난중잡록』은 동일원의 패전 장소를 法叱島로 기술했는데, 기존의 연구에서 법질도가 곧 선진임이 밝혀진 바 있다(『亂中雜錄』 3, 戊戌年 9月 26日; 李章熙·成大慶·申解享, “壬辰倭亂時 泗川戰鬪와 그 戰跡地 調査”, 『軍史』 19호(1989), p.171).

34) 太田秀春, 2019, pp.333~335; 이형재, “韓國 南海岸 倭城 築城術 研究”, 동아대 학교 고고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 pp.32~33.

현재는 간척으로 인해 주변이 모두 육지로 변했지만, 당시에는 삼면이 바다에 접하고 동쪽 면만 육지로 통하는 지형이었다.³⁵⁾ 성의 규모는 여타 왜성의 규모에 비하면 작은 편이지만, 일본군은 바닷물을 끌어들이 해자를 구축하고 성 아래쪽에 함대를 정박시켜 후퇴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요새를 구축했다.³⁶⁾ 여기에 더해 시마즈는 永春·望津·旆州·사천읍성·昆陽에 支城, 즉 성 밖에 별도로 축성한 작은 성을 설치하여 이 진영들이 서로 구원할 수 있도록 했다.³⁷⁾

이곳을 공격하는 조명연합군의 전략적 의도에 관해서는 먼저 유성룡이 1598년 초에 올린 상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³⁸⁾ 그에 따르면 경상우도 지역은 울산성 전투로 병력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공백지대가 되어 일본군의 활동을 저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일본군은 주변에 진영을 구축하면서 다시 점차적으로 진격할 기세를 보이고 있었다. 때문에 유성룡은 조선군을 증원해서 진주와 사천의 일본군을 몰아내면 조선군이 岐江과 鼎津을 경계로 지킬 수 있게 되고, 이에 후방의 백성들을 불러 생업에 종하게 하면 진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하였다. 유성룡의 의도는 사천 지역 공략을 통해 조명연합군이 영남 내

35) 1912~1916년간 육지측량부에 의해 작성된 『朝鮮半島五万分之一地圖』를 보면 개간되기 전의 지형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36) 北京大學朝鮮文化研究所, 中國社會科學院中國邊疆史地研究中心 主編, 1992, p.242.

37) 『征韓偉略』 卷5. 『萬歷三大征考』는 김해와 고성을 좌우익으로 삼고, 가운데로는 東陽倉으로 통하도록 축조되었다고 기술했다(北京大學朝鮮文化研究所, 中國社會科學院中國邊疆史地研究中心 主編, 1992, p.242). 해당 요새들 가운데 永春의 위치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망진을 함락한 후 동쪽으로 병사를 나누어 보내 영춘을 함락시켰다는 『양조평양록』의 기록을 감안하면 망진과 사천읍성의 동쪽 부근에 위치한 것으로 생각된다.(北京大學朝鮮文化研究所, 中國社會科學院中國邊疆史地研究中心 主編, 1992, p.172)

38) 『西厓集』 卷6, 「承有旨處置道內軍民後上去狀」. 정확한 시기는 적혀있지 않지만 『辰巳錄』에 1598년 1월에 올린 상소 뒤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와 비슷한 시기로 추정된다.

륙지역을 안정화하는 동시에 일본군을 해안으로 밀어붙이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군도 사천을 조명연합군이 목표로 할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 울산성 전투가 끝난 후 조선에 주둔하던 다이묘들은 이시다 미츠나리[石田三成]를 통해 가토를 서생포로, 고니시를 사천으로, 시마즈 요시히로를 固城으로 옮겨 공격을 받을 때 서로 구원이 용이하도록 전선을 축소해 줄 것을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건의했고, 그 근거로 순천이 큰 강 너머에 있어 길이 끊겨져 수륙 양면으로 가세하여 공격하면 방어가 힘들다는 이유를 들었다.³⁹⁾ 다이묘들의 건의는 만일 조명연합군이 일본군 주둔 지역의 중앙 부분인 사천 공략에 성공하면, 섬진강을 경계로 일본군은 동서로 분리된다는 우려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 제안에 대해 ‘言語道斷’이라며 단번에 거절했고, 대신 조명연합군이 다시 공격해 올 것에 대비하여 각 성에 비축된 군량의 양을 늘려서 개별 전선의 방어력을 높이도록 지시한다.⁴⁰⁾

다. 양측의 군세 및 구성

공격에 나서는 조명연합군의 규모는 제독 동일원이 지휘하는 명군 2만 6,800명과 경상우병사 정기룡 휘하 조선군 2,200여 명⁴¹⁾을 합하여 2만 9천 명이었으며, 구성은 【표 1】과 같았

39) 北島万次, 2017, pp.910~911. 주목할 것은 이 건의에서 진지를 옮겨달라고 거론된 지명들이 모두 사로병진 작전의 격전지였다는 점이다.

40) 기타지마 만지 지음, 김유성·이민웅 옮김, 2008, pp.234~235; 中野等, 2006, pp.346~347.

41) 『매현실기』에는 1598년 초 명의 부총병 李梈이 함양군 사근역에서 전투 도중 전사했는데, 그의 소속 병사들이 정기룡에게 예속되길 일해서 명 조정이 특별히 정기룡을 禦倭總兵官으로 임명해서 명군을 지휘하도록 했다는 기록이 있다(『梅軒實

다.⁴²⁾ 이 표에 의하면 조명연합군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던 명군은 주로 요동과 대동 등 北兵으로 이루어진 기병과 절강 출신의 南兵과 대동·준화의 北兵이 혼합된 보병으로 구성되었다. 편제상으로는 동일원 휘하의 혼합부대였지만, 실제 전투에서 휘하 부대는 직속 지휘관의 지휘에 좌우되었다.⁴³⁾

출신과 원적이 확인되는 명군 장수들을 보면, 모국기를 제외한 많은 장수들이 만리장성 변경에서 북방민족을 상대하던 장수들이었다. 또한 조승훈과 섭방영을 제외하면 대부분 정유재란 때 처음 조선에 파병되었다. 이는 실제 전투에서 북방 유목민족과는 다른, 보병중심의 전술을 구사하는 일본군에게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記』卷1, 「年譜」). 시점과 장소, 직책을 보면 해당 기록에서 말하는 부총병은 李寧으로, 요동의 기병 2천기를 이끌고 파병되었다가 일본군의 매복에 걸려 1598년 4월에 전사했다(『象村集』卷57, 「天朝詔使將臣先後去來姓名, 記自壬辰至庚子」; 『宣祖實錄』卷99, 宣祖 31年 4月 20日 甲戌). 그런데 1598년 5월 2일 선조와의 대화에서 조승훈은 경리, 즉 양호가 성주 방면에 이 총병이 전사하여 의지할 곳이 없다면서 자신에게 南下할 것을 지시했다고 하였다(『宣祖實錄』卷100, 宣祖 31年 5月 2日 丙戌). 조승훈과 이령 두 사람 모두 이성량 가문 휘하에서 요동의 군사를 지휘했던 인물들이기 때문에 조승훈이 이령의 군사를 지휘하도록 파견되었던 것으로 추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정기룡을 총병관에 임명하고 명군을 그에게 예속시켰다는 기록은 『매헌실기』에만 등장하기 때문에 후대에 편찬하는 과정에서 첨언된 것으로 보인다.

42) 『宣祖實錄』卷105, 宣祖 31年 10月 12日 甲子; 『象村集』卷57 「天朝詔使將臣先後去來姓名, 記自壬辰至庚子」. 중로군의 구성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가 없지만, 『象村集』과 『宣祖實錄』의 기록을 대조해서 재구성하는 것이 근사치에 가깝다고 판단된다.

43) 김경록, “정유재란기 파병 明軍의 구성과 朝·明聯合軍”, 『한일관계사연구』 57호 (2017), pp.149~150.

【표 1】조명연합군의 군세 및 구성

성명	출신	원적	직책	병력	파병 시점
董一元	宣府前衛	宣府	禦倭總兵	騎兵 5,000	1597년 12월
李寧	遼東 鐵嶺衛	遼東	副總兵	騎兵 2,000	1592년 12월 (1598년 4월 전사)
祖承訓	寧遠衛	遼東	副總兵	遵化, 步兵 7,000	1592년 6월
茅國器	浙江 紹興衛	浙江	游擊將軍	浙兵, 步兵 3,100	1597년 9월
葉邦榮		薊鎮	游擊將軍	浙兵 1,500	1592년
盧得功			游擊將軍	騎兵 3,000	1597년 11월
彭信古	武昌府 江夏縣		游擊將軍	步兵 3,000	1598년 5월
郝三聘	大同府 平虜衛	大同	游擊將軍	騎兵 1,000	1598년 8월
師道立	大同 右衛	大同	游擊將軍	步兵 2,480	1598년 5월
馬呈文	宣府 右衛	宣府	游擊將軍	騎兵 2,000	1598년 8월
柴登科		遵化	游擊將軍	騎兵 1,350	1597년 9월
藍芳威	江西 饒州府 江西縣	江西	游擊將軍	南兵 3,300	1598년 1월
편제상: 기병 14,350명, 보병 20,380명, 합계 34,730명 실제 인원: 합계 26,800명					
龔起龍	昆陽	慶尚 右道	兵馬節度使	步兵, 騎兵 2,200	-

* 출처: 『象村集』 卷57, 「天朝詔使將臣先後去來姓名, 記自壬辰至庚子」.

이런 조명연합군에 맞서는 일본군은 시마즈[島津] 가문이 지휘하는 사쓰마 번의 병력이었다. 정유재란 당시 시마즈 가문은 총 인원수로는 히데요시가 계획했던 1만 명보다 더 많은 인원을 동원했는데, 구성은 【표 2】와 같다.⁴⁴⁾

【표 2】 일본군의 군세 및 구성

소 속	馬 匹	人 員
시마즈 씨 직속	272	12,433
시마즈 모치히사[島津以久]	9	332
이쥬인 타다무네[伊集院忠棟]	69	2,332
합계	350	15,097

* 출처: 『島津家文書』 刊本 964, 「唐入軍役人数船数等島津家分覺書」

형식적으로는 시마즈 타다츠네[島津忠恒]가 시마즈 가문 밑 가신 이쥬인[伊集院] 가문의 군대를 지휘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개별적인 5개의 부대로 구성되어 있었다. 명목상 사령관이었던 시마즈 타다츠네 소속 외에도 별도로 시마즈 요시히로, 요시히사[義久] 형제의 군단이 존재했고, 또 카마쿠라 막부 시대에 시마즈 본家로부터 갈라져 나와 강한 독립성을 지니고 있던 이쥬인 가문의 타다무네, 혼고우[北郷] 가문의 미츠히사[北郷三久]가

44) 원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시마즈에게 정유재란을 위해 차출하도록 계획한 병력은 1만 명이었다(北島万次, 2017, pp.450~452). 하지만 1593년 5월에 영지의 일부를 몰수당했던 시마즈 가문으로서 히데요시 정권에게 충성도를 보일 필요가 있었고, 실제적으로는 더 많은 병력을 동원해서 조선에 건너왔던 것이다(中野等, 2019, “정유재란기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정세 판단과 정책”, 『처음 읽는 정유재란 1597』, 서울: 푸른역사, pp.88). 1597년 7월 칠천량 해전에 참가한 뒤 시마즈는 8월에 남원성 전투에 참가했고, 부여까지 북상했다가 남하해서 사천읍성에 주둔하다 12월에 공사가 완료된 선진리왜성에 입거했다(北島万次, 『壬辰倭乱と秀吉・島津・李舜臣』, 東京: 校倉書房, 2002, pp.69~78). 참전 후 산발적인 교전을 제외하면 시마즈가 크게 병력을 잃을만한 패전이 없었기 때문에, 1598년 9월 말 사천 전투 당시 사천성 부근에 집결한 일본군의 군세는 1만 5천 가량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거느리는 군단이 별도로 존재했다.⁴⁵⁾ 실제적인 지휘는 타다츠네의 아버지 요시히로가 총괄했다.

이들의 군세는 1만 5천 명 정도였지만, 실제적인 전투 병력은 아시가루에 붙은 인부[夫丸] 1,900명과 여타 인부 2,665명, 선원[加子] 2천명을 제외하면 8천 5백여 명 정도였다.⁴⁶⁾ 이 군세가 사천왜성 본성에 주둔하는 시마즈의 본대 1만 명을 중심으로 사천왜성과 지성에 분산되어 주둔하고 있었다.⁴⁷⁾

양측 모두 독립된 군단의 연합으로 구성되었으며, 수적으로는 조명연합군이 일본군보다 우위에 있었다. 그러나 출신과 원적이 제각각인 부대들로 구성된 조명연합군에 비해, 같은 사쓰마 현 출신으로 구성된 일본군이 상대적으로 동질성이 강했다고 생각된다.

3. 전투의 전개

사천 전투는 사로병진 작전의 시작과 함께 개시되었다. 먼저 조선 수군과 합류한 진린을 제외한 나머지 사로대장은 8월 18일 작전개시를 위해 한양을 출발했다.⁴⁸⁾ 이 중 사천 지역을 공격하기로 한 중로군은 동일원의 지휘 하에 경상우도 지역에 배치되어 있었지만, 9월 7일부터 내린 비로 하천이 넘쳐 조명연합군의 진격은 지체되었다.⁴⁹⁾

45) 村井章介, 1998, pp.5~8.

46) 北島万次, 2017, pp.322~324.

47) 東郷吉太郎 編, 1918, p.104.

48) 진린이 조선수군에 합류한 것은 7월 16일이었다(『李忠武公全書』 卷9, 「行錄(從子正郎芬)」). 『宣祖實錄』 卷103, 宣祖 31年 8月 18日 辛未.

49) 『宣祖實錄』 卷104, 宣祖 31年 9月 15日 丁酉.

조명연합군은 9월 18일이 되어서야 성주와 고령을 거쳐 진주로 진격했고, 19일에는 남강을 사이에 두고 망진성을 마주하여 포진했다.⁵⁰⁾ 유격 모국기는 일본군의 형세가 긴 뱀[長蛇]과 같아 머리를 부수면 파죽지세로 격파할 수 있다고 제안했고, 그의 말에 따라 조명연합군은 20일 남강에 주둔한 일본군을 습격하여 이들을 퇴각시키면서 수급 7급을 베고 포로 4백 명을 쇠환했다.⁵¹⁾ 진주성과 남강 마주 건너 위치한 망진성에 주둔하고 있던 데라야마 히사카네[寺山久兼]가 200명의 병력을 거느리고 조명연합군의 도강을 저지하고자 했지만 조명연합군은 가볍게 일본군의 저항을 격퇴하고 강을 건너 망진의 요새를 함락했다.⁵²⁾ 이날 오후 동일원은 병력을 나누어 보내 동쪽의 영춘성을 함락했고, 이어서 21일에는 5경, 즉 새벽 4시에 교전을 벌인 끝에 서쪽의 곤양을 함락시켰다.⁵³⁾

조명연합군은 서로군과 진군을 맞추기 위해 7일가량 주둔하다가 다시 진격을 개시하여 28일 사천에 이르렀다.⁵⁴⁾ 카와가미 타다자네[川上忠實]가 이끄는 300명의 일본군이 舊館, 즉 사천읍성에서 조명연합군을 저지하고자 했지만 실패했고, 150명의 전

50) 『象村集』 卷56, 「天朝先後出兵來援志」.

51) 『宣祖實錄』 卷104, 宣祖 31年 9月 25日 丁未. 『양조평양록』은 이 때 망진의 일본군 군영에 있던 명나라 사람 郭國安이 명군에게 내용해서 일본군의 군영에 불을 질렀고, 그 틈을 타서 조명연합군이 강을 건너 일본군을 공격했다고 기록하고 있다(北京大學朝鮮文化研究所, 中國社會科學院中國邊疆史地研究中心 主編, 1992, pp.170-172).

52) 『征韓偉略』 卷5. 가와가미 히사쿠니는 3백 명이라고 하였다(東郷吉太郎 編, 1918, pp.54~55).

53) 北京大學朝鮮文化研究所, 中國社會科學院中國邊疆史地研究中心 主編, 1992, pp.172~173 참고. 곤양의 위치를 감안하면 영춘성을 공격할 때와 마찬가지로 분견대를 파견해서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 신희은 동일원이 휘하의 獒騎를 보내 12급을 베었다고 하였다(『象村集』 卷56 「天朝先後出兵來援志」).

54) 신희은 이때 동일원이 서로군의 소식을 기다리며 주둔하고 있었는데, 조선의 장수들이 결전을 주장하자 정기룡을 선봉으로 삼아 진격했다고 한다(『象村集』 卷56, 「天朝先後出兵來援志」).

사자를 내고 사천성으로 퇴각했다.⁵⁵⁾ 이 과정에서 명군 유격 노득공이 조충에 맞아 전사했지만⁵⁶⁾, 조명연합군은 일본군의 수급 80여 급을 거두는 전과를 올렸다.⁵⁷⁾

9월 29일 조명연합군은 사천성을 공격할 준비를 했다. 모국기는 동일원에게 사천성과 서로 구원 위치에 있는 고성(高城)의 병력이 적으니 고성을 먼저 공격한 뒤 사천성을 공격하자고 제안했다.⁵⁸⁾ 그러나 동일원은 이 제안을 거절하고 사천성에 대한 공격을 감행한다.⁵⁹⁾ 가와카미 히사쿠니는 이날 조명연합군이 팻말에다 10월 1일 진시, 즉 오전 7시~9시부터 성을 공격하겠다고 써서 성 앞에 세워놓았고, 10월 1일에 그 말대로 공격을 시작했다고 기록했다.⁶⁰⁾

『만력삼대정고』와 『무비지』를 비롯한 명 측 사료들은 대부분 이 때 동일원이 초전의 승리로 인해 적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사천왜성을 곧바로 공격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기존의 연구들

55) 『征韓偉略』 卷5; 『宣祖實錄』 卷105, 宣祖 31年 10月 4日 丙辰. 『宣祖實錄』에서 접반사 이충원은 일본군의 규모를 4백 명으로 보고하고 있다.

56) 『兩朝平壤錄』에 의하면 노득공이 기병으로 일본군에게 돌격했으나 조충에 맞아 전사하고, 보병이 역전해서 일본군이 패주했다고 한다. 『兩朝平壤錄』은 이때大同의 기병을 이끌던 이령도 매복에 걸려 전사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부총병 이령이 매복에 걸려 전사한 것은 사천 전투가 벌어지기 전인 1598년 4월의 일이고, 그가 이끌던 병력은 대동의 기병이 아니다. 한자까지 같은 同名異인이 있었기 때문에 혼동한 것으로 추측된다(北京大學朝鮮文化研究所, 中國社會科學院中國邊疆史地研究中心 主編, 1992, p.173; 『象村集』 卷57, 「天朝詔使將臣先後去來姓名, 記自壬辰至庚子」).

57) 『상촌집』은 조명연합군이 수급 130급을 잡았다고 하고 있으며, 『매현실기』는 방어하던 일본군 5백 명을 거의 섬멸했다고 기술하고 있지만 실제보다 과장된 수치로 생각된다(『象村集』 卷56, 「天朝先後出兵來援志」; 『梅軒實記』 卷1, 「年譜」).

58) 이형석은 이때 정기룡도 모국기와 동일한 제안을 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매현실기』를 제외하면 여타 사료들에서 검증이 되지 않는다(『梅軒實記』 卷1, 「年譜」; 이형석, 1967, p.1096).

59) 北京大學朝鮮文化研究所, 中國社會科學院中國邊疆史地研究中心 主編, 1992, pp.174-175.

60) 東郷吉太郎 編, 1918, p.57.

또한 동일원의 안이한 적정 판단을 패전의 원인으로 지목하였다.⁶¹⁾ 그러나 단순히 동일원의 안이한 판단을 지적하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우선 당시 조명연합군이 파악한 일본군의 규모는 사천현 7~8천 또는 1만여 명, 고성현 6~7천 명이였다.⁶²⁾ 조명연합군이 파악한 고성현에 주둔한 일본군의 규모는 모국기의 제안처럼 고성을 단시간에 함락시킬 수 있는지 동일원이 의심하기 충분한 수치로 생각된다. 또한 고성은 사천의 동남쪽에 있는데, 성주-진주-곤양-사천읍성 선로를 통해 내려온 조명연합군이 고성을 공격하기 위해 방향을 바꾸게 되면 사천왜성의 일본군은 조명연합군의 측면을 노릴 수 있게 된다. 그렇다고 이 위협을 막기 위해 병력을 분산하기에는 2만 9천여 명이라는 조명연합군의 전력의 일본군을 절대적으로 압도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두 번째로 당시 조명연합군의 군량보급이 원활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 사로병진 작전 준비 기간부터 조명연합군은 군량보급 문제에 시달렸다.⁶³⁾ 그리고 공격에 나선 시점에도 조명연합군의 군량 보급은 여유로웠다고 보이지는 않는다.⁶⁴⁾ 8월 6일자

61) 특히 『武備志』에 모국기의 제안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는 모국기와 같은 가문 출신이었던 저자 茅元儀가 모국기를 옹호기 위한 논조로 서술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兩朝平壤錄』은 팽신고가 “내가 직접 왜적의 정세를 살펴보니, 성안에서 밥 짓는 연기가 많이 오르지 않는바, 성채를 함락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며 동일원을 부추겼다고 기록하고 있다(『武備志』卷239, 「朝鮮考」; 北京大學朝鮮文化研究所, 中國社會科學院中國邊疆史地研究中心 主編, 1992, pp.174-175). 사천 전투에 관해 기존의 패전 원인 연구는 이형석, 1967, p.1099; 이상훈, 2006, p.283; 제장명, 2020, pp.202-203 참고.

62) 『宣祖實錄』卷104, 宣祖 31年 9月 28日 庚戌.

63) 오호성, 2017, 『임진왜란과 조명일의 군수시스템』, 경인문화사, pp.102~109.

64) 선행연구 가운데에는 『宣祖實錄』卷105, 宣祖 31年 7月 庚寅의 기록을 인용해 전라도의 水陸官兵 3만 명에게 1달에 소요되는 곡식이 8천여 석이고, 이를 통해 군사 1만 명이 1달에 2,700석의 군량을 소비한다고 추산해서 사로에 지급되던 군량이 제대로 이송되었다면 군량 문제는 해결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해당 기사를 검토하면 1만 8천 석이고, 다시 계산하면 군사 1만 명

자문에 의하면 2만 1천여 명의 병력과 말 7,700필을 보유한 중로군에게는 매일 총 1만 6,380석의 쌀과 콩이 필요했는데, 사천성을 공격할 시점에 조명연합군의 숫자는 이보다 더 늘어난 2만 9천 명 정도였다.⁶⁵⁾ 그런데 이때 조명연합군이 비축한 식량은 경상도 관찰사 정경세에 의하면 2천 석, 『난중잡록』에 의하면 2만 석이었다.⁶⁶⁾ 10배 차이가 나는 수치이고, 『난중잡록』의 숫자는 공식 기록이 아니기에 의문이 제기되지만, 어느 쪽으로 계산을 해도 조명연합군의 군량 비축량은 1달치도 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동일원의 판단으로는 조명연합군의 전력이 일본군에 비해 압도적이지도 않고, 보급도 장기전을 하기에 넉넉한 상황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두 가지 문제를 감안하면 동일원은 사천왜성을 두고 고성을 먼저 공격하는 제안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위험성이 높은 작전이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사천왜성을 공격하던 시점까지는 그의 판단이 완전히 틀렸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 이때까지는 조명연합군의 기세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10월 초 1일, 동일원은 보병과 기병을 나누어 사천성을 협공했다. 보병유격 모국기, 섭방영, 팽신고가 이끄는 3명의 군사들이 전면에서 공격하고, 기병유격 학삼빙, 마정문, 사도립, 시등과가 지휘하는 4명의 군사들이 좌우로 나누어 후방에 매복해서 응원했다. 보병유격 남방위가 동북쪽의 수문을 공격했고, 부장 조승훈이 포위공격의 후군을 맡았다.⁶⁷⁾ 남병을 주력으로 한 보

이 1달에 소모하는 군량은 쌀만 6,000석이 된다. 이송이 제대로 되었다고 해도, 장기적인 군사작전을 계획하기엔 무리한 양이라고 판단된다.

65) 『事大文軌』 卷28, 「整飭遼陽寬奠等處海防兵備兼朝鮮中路監軍梁(祖齡)咨朝鮮國王(梁參議查催兵糧)」(萬曆 26年 8月 6日).

66) 『宣祖實錄』 卷105, 宣祖 31年 10月 10日 壬戌; 『亂中雜錄』 3, 戊戌年 9月 26日.

67) 北京大學朝鮮文化研究所, 中國社會科學院中國邊疆史地研究中心 主編, 1992, pp.242-243.

병이 공성전의 주된 공격을 맡고, 북병으로 구성된 기병이 좌우에서 후원하는 형태의 포진이였다.

이에 맞서 시마즈의 일본군은 수성전으로 맞섰다. 시마즈 요시히로는 전력을 보존하기 위해 대부분의 병사들을 사천왜성에 집결시켰다. 그는 여러 차례 성 밖으로 나가 결전을 벌이자는 아들 시마즈 타다츠네의 주장을 거절하고 성문을 닫고 조명연합군에게 조총사격으로 대응했다.⁶⁸⁾ 조명연합군은 일본군의 사격에 대응하며 북문으로 진입하려고 시도했다.⁶⁹⁾ 모국기와 섭방영은 卯時(오전 5시~7시)부터 巳時(오전 9시~11시)까지, 팽신고는 辰時(오전 7시~9시)부터 未時(오후 1시~3시)까지 공격을 지속했다.⁷⁰⁾ 치열한 공격 끝에 조명연합군은 木槓과 같은 공성무기와 大將軍砲를 이용하여 성문 한쪽과 성벽 몇 곳을 파괴하는데 성공했다.⁷¹⁾

이때의 상황에 관해 후치노베 모토자네는 조명연합군이 20만 명인 반면, 시마즈의 일본군은 2천 명에 불과하여 “그 어려움을 붓과 종이로 다할 수 없을 정도”였으며, 더 이상의 방어가 어려워 일전을 준비했다고 회고했다.⁷²⁾ 그의 기술은 양측의 병력 기술에 보이듯이 과장이 심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68) 東郷吉太郎 編, 1918, pp.201-205; 北島万次, 2017, p.1010.

69) 續群書類從完成會, 1923, p.367.

70) 가와카미 히사쿠니의 표현에 따르면 조총이 뜨거워져 수건에 물을 적서 조총을 닦아도 식지 않을 정도로 치열한 전투였다고 한다(東郷吉太郎 編, 1918, p.58).

71) 北京大學朝鮮文化研究所, 中國社會科學院中國邊疆史地研究中心 主編, 1992, pp.175, 243 참고. 스위프는 木槓을 공성추(battering ram)으로 해석했다(Kenneth M. Swope, *A Dragon's Head and a Serpent's Tail: Ming China and the First Great East Asian War, 1592-1598*, 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2009, p.270). 그러나 당시 조명연합군의 화약무기가 일본성의 석축을 무너뜨리는데 역부족이었던 것과 목책을 뽑았다(拔柵)는 『명사』 ‘조선열전’의 기록을 종합하면 성벽 외곽의 목책 일부를 부순 정도였을 것이다(『宣祖實錄』 卷96, 宣祖 31年 1月 丁亥; 『明史』, 「列傳」 第208 ‘朝鮮列傳’ 참고).

72) 續群書類從完成會, 1923, p.367.

어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시마즈가 조명연합군의 허점을 노리고 일전을 결심했다는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 허점은 명군 진영에서 뜻밖의 사고가 발생하면서 생겼다. 성을 공격하던 명군 진영에서 화약 폭발사고가 일어났고, 폭발로 인해 생긴 화약 연기가 시야를 가리게 되면서 명군은 혼란에 빠졌다. 기회를 노리고 있던 사천성의 일본군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성문을 열고 명군을 급습했다.

이때 명군 진영에서 벌어진 화약 사고와 관련해서는 관련 기록들이 일관되지 않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선조실록』에 기재된 조선 측의 보고에서는 모국기의 진영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났다고 기술하고 있다.⁷³⁾ 하지만 孫衛國이 지적했듯이, 명 측의 기록과 『선조실록』의 史評을 종합하면 사고가 일어난 진영은 팽신고의 진영이 맞다.⁷⁴⁾

그 다음은 이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느냐의 문제이다. 『난중잡록』은 일본군이 약세를 보이며 명군을 끌어들이고, 염초 몇 섬을 가져다 몰래 성밖에 묻어놓고 옆으로 구멍을 뚫어 불을 가지고 잠복하게 한 뒤, 거짓으로 패하는 척 명군을 유인하고는 불을 붙여 조명연합군의 혼란을 유도했다고 기록하고 있다.⁷⁵⁾ 반면에 명측의 기록인 『양조평양록』과 『만력삼대정고』는 공성무기의 화약이 폭발했다고 증언하는데, 특히 『양조평양록』은 팽신고 진영의 군기 해이 및 훈련부족을 지목하고 있다.⁷⁶⁾

일본군의 기록은 여기서 두 방향으로 나뉜다. 하나는 일본군이 고의적으로 사고를 냈다는 것인데, 여기서도 증언이 엇갈린

73) 『宣祖實錄』 卷105, 宣祖 32年 10月 8日 庚申; 10月 10日 壬戌. 각각 군문도감과 경상도 관찰사 정경세의 보고이다.

74) 孫衛國, 2017, pp.246~247; 『宣祖實錄』 卷110, 宣祖 32年 3月 7日 丙戌.

75) 『亂中雜錄』 3, 戊戌年 9月 26日.

76) 北京大學朝鮮文化研究所, 中國社會科學院中國邊疆史地研究中心 主編 1992, pp.175, 243.

다. 오시게 헤이로쿠는 많은 적군 속에 있는 화약 항아리에 불을 넣었다고만 하고 있다.⁷⁷⁾ 반면 가와카미 히사쿠니는 명군이 성을 불태우려고 마련한 화약 항아리를 첩포로 쏘아 부수었고, 이에 불이 들어가 타올랐다고 기록하고 있다.⁷⁸⁾ 이 기록대로라면 명군의 화약사고는 『난중잡록』이 증언한 것처럼 시종일관 치밀하게 계획해서 벌인 것이 아니라, 명군이 성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보인 약점을 일본군이 우연히 포착한 것에 가깝다.

다른 하나는 사고가 우연히 났다는 것이다. 후치노베 모토사네에 의하면, 결전을 준비하던 터에 명군 진영에 놓여있던 화약통 가운데 하나에 불이 날아들었고, 이것이 연쇄적으로 폭발했다고 한다. 그는 이 증언에 덧붙여 앞서 붉은색 여우와 흰색 여우가 성에서 조명연합군의 진영으로 달려 나갔고, 상서로운 징조로 여겨 일본군이 용기를 얻었다고 증언하고 있다.⁷⁹⁾ 이 기록은 사고가 우연히 났다는 명 측 기록과 거의 유사하지만, 신령의 가호를 받았다는 식의 神異적 이야기가 첨언되었다는 차이를 보인다.⁸⁰⁾

일본측 기록이 시마즈 요시히로의 군공과 지혜를 강조하는 관점에서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군 진영의 화약 사고와 관련하여 시마즈의 계책이나 이를 강조하는 서술은 등장하지 않는다. 이는 화약사고가 일본군의 사전의 치밀한 계산 아래 이루어졌다는 기록의 설득력이 약하다는 것을 뒷받침한다.⁸¹⁾

77) 北島万次, 2017, p.1010.

78) 東郷吉太郎 編, 1918, p.57.

79) 續群書類從完成會, 1923, 『續群書類從(第20輯下)』, p.367.

80) 이는 시마즈 가문의 조상인 시마즈 타다히사[島津忠久]를 구해주었던 스미요시[住吉] 신이 자신의 使臣인 여우를 보내 시마즈 군을 구원했다는 이야기가 첨부된 것이다(김시덕 지음, 『그들이 본 임진왜란』, 서울: 학교재, 2012, pp.203~204).

81) 시마즈 가문의 무공을 중심으로 사쓰마 번의 正史를 편찬하고자 시도했던 『島津国史』에서도 시마즈가 조명연합군을 상대로 화약사고를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다는 것은 그렇게 계획한 정황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암시한다(『島津国

결과적으로는 팽신고의 진영에서 일어난 화약 사고가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요소 가운데 하나임은 분명하지만, 여러 사료를 종합해 보면 이 사고를 일본군이 주도면밀하게 계획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화약 폭발 사고를 근거로 조명연합군이 일본군의 의도를 간파하지 못했다고 비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⁸²⁾ 분명한 것은 훈련도가 낮았던 팽신고의 부대에서 발생한 화약 폭발 사고로 인해 조명연합군에게 허점이 생겼고, 일본군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세로 전환했다는 것이다.⁸³⁾ 여기에 조명연합군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승패에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다.

일본군은 성문을 열고 혼란에 빠진 조명연합군의 진영을 습격했고, 여기에 고성을 지키고 있던 일본군이 도착하여 협공했다.⁸⁴⁾ 사고로 인해 혼란 상태에 있던 팽신고의 진영은 그대로 패주했고, 공황이 퍼지면서 학삼빙과 마정문의 기병도 덩달아 도주했다. 모국기와 섭방영은 분전했지만 증원병이 합세해서 전세를 가다듬은 일본군의 공격에 사상자가 늘어났고, 10리 떨어진 곳에 주둔하고 있던 남방위 또한 퇴로가 끊어지게 되자 후퇴하게 되었다.⁸⁵⁾ 이러한 혼란을 수습하고 지원해야 할 동일원이

史』卷21). 더욱이 孫衛國이 지적했듯이, 『난중잡록』을 제외한 여타 조선측 기록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은 화약사고를 일본군이 사전에 미리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기록의 신빙성을 더욱 떨어뜨린다(孫衛國, 2017, p.241).

82) 이상훈은 일본군의 전략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과 관련하여, 화약사고에 대한 『亂中雜錄』의 기록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난전 중의 승리를 후대에 서술하는 과정에서 변조되었을 가능성 또한 제시하였지만, 이와 관련해서 일본 측의 기록을 검토하지는 않았다(이상훈, 2006, pp.283~284).

83) 일본군의 기록에 의하면 폭발 사고가 명군의 취급 부주의 또는 일본군의 공격에 노출된 곳에 화약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소리이다. 어느 쪽이건 명군의 훈련도가 낮아 화약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했다는 결론으로 수렴한다.

84) 北京大學朝鮮文化研究所, 中國社會科學院中國邊疆史地研究中心 主編, 1992, p.243.

85) 오시게 헤이로쿠는 명군을 공격하면서 일본군도 전열이 흐트러지게 되었는데, 시마즈 다다나기(島津忠長) 등이 합세해서 전열을 가다듬었다고 기록하고 있다(北島

제시간에 맞춰 지원하는 데 실패하면서 결국 조명연합군의 중로군 전체가 패주하게 되었다.⁸⁶⁾

이때의 상황에 대해 보고를 올린 監察御史 陳效는 海防道右參議 梁祖齡의 보고를 인용했는데, 양조령은 패전의 원인에 대해 “은 군대가 모두 출전하는데 老營, 즉 본영을 설치하지 않았고 기병과 보병이 일제히 공격함에 모두 후원병이 없었다.”고 하며 계획이 허술했다고 비판하였다.⁸⁷⁾ 그의 말대로 화약 사고가 생긴 틈을 타서 일본군이 역습으로 나오자, 명군은 부대 간에 후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무질서하게 도주했다.

이때 명군이 부대 간에 후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빠른 속도로 무너졌던 것은 명군의 구조에 기인한 것이었다. 각 장수들의 휘하 병력은 사실상 그들의 사병이나 다름없었고, 그들에게는 자신의 자산이 되는 병력을 희생하면서까지 협조적으로 싸울 동기가 별로 없었다.⁸⁸⁾ 때문에 여러 병력이 혼합된 구성으로 이루어진 명군은 유대감이 낮았고, 그 결과 일본군의 역습에 제각기 도주해버렸다.⁸⁹⁾ 반면 일본군도 연합부대의 성격이 있었지만, 모두 사쓰마 지역 출신으로 동질성은 조명연합군보다 높았다. 그리고 시마즈 요시히로는 일본군 장수들 가운데서도 명성이 높았고, 그의 병력은 당시 일본에서도 높은 전투력으로 유명한 정

万次, 2017, p.1010).

86) 北京大學朝鮮文化研究所, 中國社會科學院中國邊疆史地研究中心 主編, 1992, p.175.

87) 『宣祖實錄』 卷105, 宣祖 31年 10月 17日 己巳. 진효는 여기에 덧붙여 장수들이 “끝내 머리를 싸쥐고 귀처럼 도망쳤다.”며 비판했다.

88) 軍戶制를 기반으로 한 기존의 군제가 붕괴되면서 명의 장수들은 병사들을 모집해 급료를 지불하고 훈련시켜 전투에 나갔고, 이 부대는 家軍이라는 명칭이 보여주듯이 사적인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었다. 레이 황은 戚繼光이 이끌던 戚家軍만 거론하였지만, 실제로는 俞大猷가 지휘한 俞家軍과 같이 다른 장수들의 병력 또한 “家軍”으로 지칭된 사례가 있다(『明史』, 「列傳」 卷212, 「列傳」 第100 ‘俞大猷列傳’; 레이 황 지음, 김한식 외 옮김, 『1587, 만력 15년 아무 일도 없었던 해』, 서울: 새물결, 2004, pp.279~280).

89) 김경록, 2017, pp.149~150.

예병이었다.⁹⁰⁾ 조명연합군과는 달리 일본군은 알맞은 시간에 부대 간 상호지원을 구축해서 싸웠다.⁹¹⁾

일본군의 역습으로 패주하는 과정에서 조명연합군은 중간에 병력을 수습할 거점이 없었기 때문에 단 한 번의 패배에도 성주까지 후퇴해야 했다.⁹²⁾ 중로군은 날이 다하도록 사천-합천-성주에 이르는 길로 후퇴했고, 일본군은 망진까지 조명연합군을 추격했다.⁹³⁾ 전투는 申時, 즉 오후 3시~5시 무렵 끝났지만, 조명연합군은 추위 속에 산길을 따라 퇴각하는 과정에서 수백 명의 병력을 추가로 잃었다. 퇴각 도중에 모국기는 병력을 수습해서 남강의 도하 지점인 망진을 방어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동일원은 이곳이 고립된 지점이기 때문에 일본군이 공격해 들어오면 방어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모국기의 제안을 거부하고 성주로 퇴각했다.⁹⁴⁾

4. 사천 전투의 패인 및 영향

가. 사천 전투의 패전 원인

결과적으로 사천 전투의 패전은 조명연합군이 우세한 상황에서 지휘관의 방심으로 패전한 전투라고 보기 어렵다. 조명연합군의 전력은 수적 우위에 있긴 했지만, 철저히 요새화된 왜성을

90) 『看羊錄』, 「壬辰丁酉入寇諸將倭數」.

91) 『島津國史』 卷21.

92) 뒷날 差官으로 일본에 갔던 河應潮와 汪洋은 이날 명군이 250리를 후퇴하고 나서야 진영을 수습할 수 있었다고 증언했다(『海上錄』 卷1, 己亥年 6月 19日).

93) 續群書類從完成會, 1923, p.369; 『象村集』 卷56, 「天朝先後出兵來援志」.

94) 北京大學朝鮮文化研究所, 中國社會科學院中國邊疆史地研究中心 主編, 1992, p.176.

지키고 있는 일본군을 압도할 만큼 충분하지는 않았다. 통상적으로 공세를 하기 위해서는 적보다 3배 이상의 전력이 필요하고, 왜성처럼 잘 요새화된 진지를 공격하는 경우에는 더욱 많은 전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조명연합군의 전력은 일본군의 2배 정도에 불과했다.

게다가 혼합군으로 구성된 명군의 전력은 동질성이 낮았고, 병력에서 큰 비중을 가진 북병으로 구성된 기병은 왜성을 공격하기에 알맞은 전력이 아니었다. 여기에 총사령관 동일원을 비롯한 많은 주요 지휘관들이 정유재란 때 처음 조선에 파병된 인물들이었고, 이들에게는 일본군이나 왜구를 상대했던 경험이 부족했다.⁹⁵⁾ 단순히 동일원의 단일한 판단으로 패전했다고 하기에 조명연합군에게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반면 일본군은 조명연합군을 상대하면서 노련하게 대응했다. 『난중잡록』의 기록처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화약 사고를 조장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최대한 병력을 집중적으로 운용하며 반격을 가할 틈을 노렸다. 마침 명군 진영에서 화약 사고가 벌어졌을 때 일본군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고, 부대 간의 협조체계를 이루어 모국기와 섭방영의 명군을 공격했다. 반면 조명연합군은 초반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화약 폭발 사고로 인한 혼란을 수습하지 못했고, 그 결과 일본군의 역습에 많은 사상자를 내고 패주했다.

사천성의 패전에서 조명연합군이 입은 피해는 컸다. 비록 조선군의 피해는 크지 않았다고 추측되지만, 문제는 주력이었던 명군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것만 7천 명 이상의 전사자에 3~4백

95) 마귀는 동일원을 놓고 “처음으로 와서 倭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는 자신이 일본군의 정황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어조였지만, 동일원의 경력을 놓고 보면 사실성이 높은 발언이었다(『明史』卷239, 「列傳」第127 “董一元列傳”; 『宣祖實錄』卷103, 宣祖 31年 8月 15日 戊辰).

여 명의 포로가 발생하는 큰 피해를 입었다. 증로군 전체 병력의 1/4이 넘는 병력을 한 번의 전투로 잃어버린 대패였다.⁹⁶⁾

나. 패전의 영향

사천 전투의 패배 소식은 서로군과 동로군이 철수하는 계기가 되었다. 원래 사로병진 작전의 주요 전제가 대규모 병력을 동원한 전면적 공격으로 주요 거점에 위치한 일본군이 서로 구원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었는데, 증로군이 사천 방면의 패배와 함께 후퇴하면서 사천에 주둔한 일본군이 여타 전선의 일본군을 구원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다.⁹⁷⁾ 수군을 제외한 3로군이 모두 후퇴하면서 조명연합군이 반년 넘는 시간 동안 준비했던 사로병진 작전 자체가 실패하게 되었다.⁹⁸⁾

더 나아가 사천 전투는 일본군에 대한 명군 지휘부의 태도를 바꾸었다. 정유재란이 시작될 무렵 명군의 전쟁 수행 의지는 임

96) 조선군들의 지휘관들이 크게 처벌받지 않은데다 모국기가 정기룡에 대해 호평하며 그의 체직에 이의를 제기한 것을 보면 조선군의 피해는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宣祖實錄』 卷108, 宣祖 32年 1月 20日 辛丑). 결국 명군의 피해가 관건인데, 동일원의 차관이 군문도감에 보고한 수치는 7~8천, (『宣祖實錄』 卷105, 宣祖 31年 10月 8日 庚申) 경상도 관찰사 정경세는 7천 명으로 보고하고 있고(『宣祖實錄』 卷105, 宣祖 31年 10月 10日 壬戌), 급사 서관란이 최종적으로 들은 숫자는 전사자 7천으로 기록되어 있다(『宣祖實錄』 卷105, 宣祖 31年 10月 24日 丙子). 그러나 유성룡과 오극성이 사망자를 만여 명으로 기록하고 있는 데다, 7천이라는 숫자도 사망자만 보고한 숫자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피해는 이보다 컸을 가능성이 있다(『西厓集』 卷16, 「記壬辰以後講兵事」; 『問月堂集』 卷3, 「壬辰日記 下」). 포로에 관한 내용은 『宣祖實錄』 卷105, 宣祖 31年 10月 23日 乙亥 참고.

97) 제장명은 서로군의 전의 상실에 초점을 두었지만, 작전의 주요 전제가 무너졌다는 점을 지나치게 간과했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사천에 주둔하던 시마즈의 일본군이 순천에 고립된 고니시의 일본군을 구원하려는 과정에서 노량 해전이 벌어진 것을 감안하면 서로군이나 동로군이 충분히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된다. 이상훈, 2006, pp.285-286; 제장명, 2020, pp.203-204.

98) 『宣祖實錄』 卷105, 宣祖 31年 10月 12日 甲子.

진왜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높았다. 사로병진 작전이 개시될 무렵까지만 해도 명군 지휘부는 일본군을 섬멸할 것을 강조하며,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사망 여부와는 상관없이 일본군을 공격할 의사를 보였다.⁹⁹⁾ 그러나 사천 전투의 패배와 함께 사로병진 작전이 실패로 귀결되자 명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진다. 이 전투의 패배로 명군은 많은 병력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다.¹⁰⁰⁾

사천 전투 후 조선에 파견된 명군 수뇌부는 이전과는 달리 군량을 빌미로 퇴군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10월 27일 右參政 王士琦는 조선이 군량 수송을 제대로 하지 않고 허위 숫자로 보고하여 명군이 며칠째 굶주리고 있으며, 식량이 없으면 퇴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조선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연이어서 형개의 旗鼓官 張九經은 선조에게 형개와 진효의 의사를 선조에게 통보했는데, “대군이 굶주린다면 일찍 철수하여 돌아가는 것만 못하다”며 군량을 빌미로 퇴군할 의향이 있음을 드러내었다. 이에 대해 조선 측이 군량이 떨어졌다는 보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트집을 잡고 있으며, 군대를 철수한다는 말까지 하였으니, 그(왕사기: 인용자 주)의 의향을 알 수 있다고 반응할 정도로 명의 태도는 크게 달라져 있었다.¹⁰¹⁾

마침 8월 18일 히데요시가 사망했고, 공식적인 일본군의 철군

99) 『宣祖實錄』 卷103, 宣祖 31年 8月 4日 丁巳; 17日 庚午; 『宣祖實錄』 卷104, 宣祖 31年 9月 2日 甲申. 특히 9월 2일 형개는 김명원과의 대화에서 히데요시의 사망 여부는 말할 필요가 없으며, “전투가 벌어진 이상 廟殺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100) 사천 전투 이후 벌어진 노량 해전에서 승리한 후 형개는 시마즈 요시히로를 죽였다는 내용의 보고를 올렸다. 실제로 시마즈 요시히로는 전사하지 않았고 명군도 이를 알았지만, 그런 거짓말로 위신을 세워야 할 정도로 명군이 받은 충격이 컸던 것이다. 『明神宗實錄』 卷329, 萬曆 26年 12月 15日 丙寅; 『宣祖實錄』 卷108, 宣祖 32年 1月 20日 辛丑 참고.

101) 『宣祖實錄』 卷105, 宣祖 31年 10月 27日 己卯.

명령이 내려졌다. 이 명령은 10월 1일 부산에 도착했는데, 조명연합군이 사천에서 패한 바로 그날이었다.¹⁰²⁾ 여기서 전의를 상실한 명군과 일본군의 필요가 부합했다.

11월 1일부터 명군은 다시 남하하기 시작하지만, 이미 적극적으로 싸울 생각이 없었다. 유정과 동일원은 형개의 허가 아래 강화교섭을 진행했고, 家丁을 인질로 보내 일본군의 퇴로를 보장했다.¹⁰³⁾ 겉으로는 “조각배[片船]도 돌려보내지 않겠다”며 조선 측에 일본군을 공격한다고 하였지만, 조선이 이런 언행을 “스스로 해명하는 계책”으로 볼 정도로 공공연한 협상이 이루어졌다.¹⁰⁴⁾ 결국 중로군과 동로군은 18일, 서로군은 11월 19일에 별다른 교전 없이 일본군이 버려둔 빈 왜성을 점거하는데 그쳤다.¹⁰⁵⁾ 선조도 “왜적이 天兵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뒤 까닭 없이 일시에 물러갔지만 事勢로 헤아려 보건대 그럴 리가 없다. 실제로 天兵이 두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는 반드시 天將이 甘言利說로 화친하자고 꾀어 물러가게 한 것”이라고 했을 정도로, 일본군의 철수는 사천 전투 후 서로의 필요가 부합한 일본군과 명군이 강화협상을 벌인 결과였다.¹⁰⁶⁾

102) 北島万次, 2017, p.1003. 해당 명령서는 조선·명측과 교섭해서 조선의 왕자가 인질로 오게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상황이 여의찮으면 공물로 대체해도 좋고, 그 밖의 구체적인 협상안은 현지의 판단에 맡긴다고 지침을 내렸다(北島万次, 2017, pp.977-978 참고).

103) 김경태, 2014, pp.242~244. 흔히 형개가 말한 명의 전쟁 수행 원칙이 “陽戰陰和, 陽剿陰撫”라고 해서 일본군과의 전투 의지가 크게 없었다고 거론되지만, 해당 발언의 시점은 1597년 8월이고, 정유재란의 전개 과정을 보면 이 원칙이 시종일관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明史紀事本末』 卷62 ‘援朝鮮’ 참고)

104) 『宣祖實錄』 卷106, 宣祖 31年 11月 26日 丁未.

105) 『宣祖實錄』 卷106 宣祖 31年 11月 25日 丙午; 26日 丁未; 23日 甲辰. 이때 조명연합군이 올린 전과는 중로군이 사천성에서 얻은 일본군의 수급 2급과 서로군이 순천왜성에서 발견한 조선인 3명과 牛馬 4필이 전부였다.

106) 『宣祖實錄』 卷106, 宣祖 31年 11月 29日 庚戌.

기존의 연구에서는 사천 전투의 결과가 사로병진 작전의 실패와 더불어 노량해전의 변수가 되었음을 거론한 바 있다.¹⁰⁷⁾ 여기에 더 나아가 사천 전투는 사로병진 작전을 실패로 끝나게 했다는 점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명이 별다른 교전 의사 없이 전쟁을 끝내고 싶게 했다는 점에서 벽제관 전투 못지않은 결정적 전투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벽제관 전투가 임진왜란 초기 명의 태도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면, 사천 전투는 정유재란의 막바지에 명군의 입장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정유재란 막바지에 벌어졌던 사천 전투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여 패인을 분석하고, 전투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논증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조·명·일 3국의 사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존의 연구를 재검토하고자 하였다.

1597년 말 울산 공격에 실패한 조명연합군은 1598년 2월 다시 대군을 동원하여 일본군을 공격하기 위한 사로병진 작전을 구상했다. 일본군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하기로 작전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일본군 전선의 중앙에 위치한 동시에 내륙지역을 안정시킬 수 있는 거점인 사천이 작전목표 중 하나로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1598년 9월 말부터 동일원이 이끄는 2만 9천 규모의 조명연합군과 시마즈 요시히로가 이끄는 1만 5천가량의 일본군이 포진한 사천 일대에서 전투를 벌이게 되었다.

107) 조명연합군의 패배로 순천 왜성에 고립된 고니시 유키나가를 도울 수 있는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다(이상훈, 2006, pp.285~286).

9월 20일 남강을 도하해서 망진의 요새를 함락시킨 조명연합군은 연이어 곤양과 영춘, 사천읍성을 함락하고 10월 1일 사천왜성 공격에 돌입했다. 여기까지는 조명연합군의 기세가 이어졌다. 그러나 공격 도중 훈련도가 낮았던 팽신고의 명군 진영에서 화약 사고가 일어났고, 전력을 보존하며 반격의 기회를 노리던 일본군이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부대 간의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조명연합군은 많은 사상자를 내고 패주했다.

패전의 원인에 관해 국내에서 이루어진 선행 연구들은 주로 초반의 승세로 사령관 동일원이 敵情을 안일하게 판단했던 것을 패전 요인으로 들었다. 그러나 조명연합군의 실상은 단순히 사령관 한 사람의 안일한 판단보다 좀 더 근본적인 패전 요인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선 공세로 나서는 조명연합군의 전력이 일본군에 비해 압도적이지 않았다. 최소 3배 이상의 전력이 필요했지만, 현실은 2배 정도에 불과했다. 둘째로 군량미의 보급이 충분하지 않았다. 보급 문제로 인해 조명연합군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방법을 사용할 수 없었고, 급하게 사천왜성을 공격해야 했다. 세 번째로, 그들의 구성은 일본군을 상대하기에 적합하지도 않았다. 많은 명군이 일본군을 상대해본 적이 없는 북방의 기병이었고, 이들은 요새화된 성을 공격하기에 알맞은 전력이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명군 진영에서 벌어진 화약 사고를 노련한 일본군이 놓치지 않고 역습으로 나왔고, 조명연합군이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패전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결과적으로 조명연합군은 전체 전력의 1/4이 넘는 손실을 입고 패주했다.

사천 전투의 패배로 사로병진 작전이 실패로 끝나면서, 명군 지휘부의 태도는 변했다. 겉으로는 일본군을 공격하겠다고 했지만, 보급 문제를 핑계로 철군을 거론하는 데서 보이듯이 명군

지휘부는 전의를 상실했다. 여기에 때마침 도착한 히데요시의 사망에 따른 철군 명령이 맞물리면서 명군은 일본군과 타협하는 방법을 택하게 된다. 결국 강화협상이 진행되었고, 수로군을 제외한 나머지 전선의 명군은 일본군의 퇴로를 보장하면서 별다른 교전 없이 버려진 왜성을 점거하는 데 그쳤다.

사천 전투의 패전 원인과 영향은 정유재란 당시 조명연합군의 실상과 한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명연합군에게는 일본군을 섬멸하겠다는 의도가 있었지만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군사적 역량이 부족했고, 이는 사천 전투의 패전으로 이어졌다. 패전 후, 한쪽으로는 공격을 외치면서도, 다른 한쪽으로는 적은 희생으로 전쟁을 끝내려는 생각이 명군 지휘부를 타협의 길로 이끌었다는 점에서 사천 전투는 결정적 전투였다. 결국 수군을 제외한 명군 수뇌부의 목인 아래 일본군은 철수했고, 조선과 명의 승리 아닌 승리로 전쟁이 끝났다.

〈참고문헌〉

1. 사료

- 한국: 『朝鮮王朝實錄』, 『懲毖錄』, 『西厓集』, 『象村集』, 『月沙集』, 『看羊錄』, 『海上錄』, 『問月堂集』, 『大東野乘』, 『梅軒實記』, 『李忠武公全書』
 중국: 『明史』, 『明史紀事本末』, 『明神宗實錄』, 『兩朝平攘錄』, 『萬曆三大征考』, 『武備志』
 일본: 『豊臣秀吉譜』, 『島津家高麗軍秘錄』, 『征韓偉略』, 『島津国史』

2. 연구저서

- 허남린 · 김경태 · 나카노 히토시(中野等) · 완밍(萬明) · 천상승(陳尙勝) · 노영구 · 나동욱 · 도리쓰 료지(鳥津亮二) · 오타 히데하루(太田秀春), 『처음 읽는 정유재란 1597』, 서울: 푸른역사, 2019.
 기타지마 만지(北島万次), 김유성 · 이민웅 옮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침략』, 서울: 경인문화사, 2008.
 김시덕 지음, 『그들이 본 임진왜란』, 서울: 학고재, 2012.
 레이 황, 김한식 외 옮김, 『1587, 만력 15년 아무 일도 없었던 해』, 서울: 새물결, 2004.
 정두희 · 이경순 엮음, 『임진왜란, 동아시아 삼국전쟁』, 서울: 서강대학교, 2007.
 서인한, 『壬辰倭亂史』, 서울: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1987.
 _____, 『한국연합작전사(삼국-조선 편)』, 서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9.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국역 매헌실기』, 상주: 상주시, 1999.
 오호성, 『임진왜란과 조·명·일의 군수시스템』, 서울: 경인문화사, 2017.
 이민웅, 『임진왜란 해전사』, 서울: 청어람미디어, 2004.
 이상훈, 『전략전술의 한국사-국가전략에서 도하전까지』, 서울: 푸른역사, 2014.
 이형석, 『壬辰戰亂史』, 서울: 임진전란사간행위원회, 1976.

- 趙浚來, 『임진왜란사 연구의 새로운 관점』, 성남: 아세아문화사, 2011.
- 趙浚來·北島万次·陈尚胜 외, 『韓中日共同研究 정유재란사』, 파주: 범우사, 2019.
- 최 관·김시덕, 『임진왜란 관련 일본문헌 해제-근세편』, 서울: 도서출판 문, 2010.
- 한일문화교류기금·동북아역사재단 엮음, 『임진왜란과 동아시아세계의 변동』, 경인문화사, 2010.
- 한일관계사연구논집 편찬위원회 엮음, 『임진왜란과 한일관계』 서울: 경인문화사, 2005.
- 한일관계사연구논집 편찬위원회 엮음, 『동아시아 세계와 임진왜란』, 서울: 경인문화사, 2010.

- 東郷吉太郎 編, 『泗川新寨戰捷之偉蹟』, 東京: 薩藩史料調査會, 1918.
- 北島万次, 『壬辰倭亂と秀吉・島津・李舜臣』, 東京: 校倉書房, 2002.
- _____, 『豊臣秀吉朝鮮侵略關係史料集成 3 一五九六~一五九八年』, 東京: 平凡社, 2017.
- 續群書類從完成會, 『續群書類從(第20輯下)』, 東京: 續群書類從完成會, 1923.
- 中野等, 『秀吉の軍令と大陸侵攻』, 東京: 吉川弘文館, 2006.
- _____, 『文祿・慶長の役』, 東京: 吉川弘文館, 2008.
- 参謀本部 編, 『日本戦史 朝鮮役』(全3卷) 東京: 偕行社, 1924.
- 黒田慶一 編, 『韓国の倭城と壬辰倭亂』 東京: 岩田書院, 2004.

Samuel Hawley, *The Imjin War: Japan's Sixteenth-Century Invasion of Korea and Attempt to Conquer China*, Seoul: Royal Asiatic Society-Korea Branch, 2005

Edited by James B. Lewis, *The East Asian War, 1592-1598: International Relations, Violence and Memory*, London: Routledge, 2017

Kenneth M. Swope, *A Dragon's Head and a Serpent's Tail: Ming China and the First Great East Asian War, 1592-1598*, 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2009

Stephen Turnbull, *Samurai Invasion: Japan's Korean War 1592-1598*, London: Cassell, 2002

3. 연구논문

- 김경록, “임진왜란 연구의 회고와 제안”, 『軍史』 100호(2016):67-118.
<http://doi.org/10.29212/mh.2016..100.67>
- _____, “정유재란기 파병 明軍의 구성과 朝·明聯合軍”, 『한일관계사 연구』 57호(2017):123-166.
<http://uci.or.kr/I410-ECN-0101-2018-349-001263422>
- 김경태, “임진전쟁기 강화교섭 연구”,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4.
<http://uci.or.kr/G901:A-0005831879>
- 김광옥, “일본 에도시대 임진왜란 기록물에 대한 연구-島津氏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27호(2006):1-32.
<http://uci.or.kr/G704-001560.2006..27.017>
- 박재광, “壬辰倭亂 研究의 現況과 課題”, 『한일역사 공동연구보고서』 2권(2005):47-104.
- 孫衛國, “董一元與泗川之役略考”, 『新亞學報』 34(2017):231-258.
- 劉寶全, “중국학계의 임진왜란사 연구 현황과 과제”, 『한국사학보』 45(2011):181-206.
<http://uci.or.kr/G704-000690.2011..45.007>
- 이민웅, “朝·明 聯合艦隊의 형성과 露梁海戰 경과”, 『역사학보』 178호(2003):83-112.
<http://uci.or.kr/I410-ECN-0101-2010-911-002860094>

이상훈, “정유재란 시 사천지역의 전투와 조명군총의 조성”, 『한국중세사연구』 20호(2006):263-296.

<http://uci.or.kr/G704-001262.2006..20.007>

이 옥, “순천 왜교성전투와 조선민중의 동향”, 『한국사학보』 54호(2014):191-219.

<http://uci.or.kr/G704-000690.2014..54.011>

李章熙·成大慶·申解淳, “壬辰倭亂時 泗川戰鬪와 그 戰跡地 調査”, 『軍史』 19호(1989):156-185.

<http://uci.or.kr/I410-ECN-0101-2016-390-001818159>

이형재, “韓國 南海岸 倭城 築城術 研究”, 동아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

<http://uci.or.kr/G901:A-0005537202>

趙浚來, “정유재란과 順天 倭橋城 燹燹”, 『아시아문화』 12호(2003):213-237.

<http://uci.or.kr/G901:A-0001144317>

_____, “정유재란과 順天倭城論 재검토”, 『문화사학』 27호(2007):827-852.

<http://uci.or.kr/G704-000879.2007..27.058>

_____, “임진왜란사 인식의 문제점과 연구과제”, 『韓國史學史學報』 26호(2012):5-60.

<http://uci.or.kr/G704-001549.2012..26.003>

제장명, “정유재란 시기 사천성 전투의 경과와 의미”, 『이순신연구논총』 33호(2020):165-212.

村井章介, “島津史料로 본 泗川戰鬪”, 『남명학연구』 8호(1998):181-204.

<http://uci.or.kr/G901:A-0002081570>

崔斗煥, “壬辰倭亂 時期 朝明聯合軍 研究”, 경상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1.

<http://uci.or.kr/G701:B-00099018508@N2M>

하우봉, “동아시아 국제전쟁으로서의 임진전쟁”, 『한일관계사연구』 39호(2011):331-368.

<http://uci.or.kr/G704-001395.2011..39.005>

한명기, “정유재란 시기 명 수군의 참전과 조명연합작전”, 『軍史』 38호 (1999):33-55.

<http://uci.or.kr/G901:A-0001362575>

_____, “임진왜란 시기 명군지휘부의 조선에 대한 요구와 간섭”, 『한국학연구』 36호(2015):477-523.

<http://uci.or.kr/G704-SER000012168.2015..36.013>

(Abstract)

The Re-examination of the Battle of Sachŏn-Focusing on the Cause of Defeat and its impact

Moon, Hyung-jo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examine the Battle of Sachŏn in 1598, focusing on the cause of the defeat and the impact of the battle. This will help to reconstruct the battle and reveal the reality of the Imjin War.

After stopping the attacks of the early Japanese Second Invasion of Korea in 1597 (丁酉再亂), the Chosŏn-Ming allied forces launched a counterattack at Ulsan, but failed. Yang Hao (楊鎬) planned the Operation Advancing Four-ways to make up for the failure, and Sachŏn was selected as one of the objectives of the operation. But the Japanese fortified this area in 1597, and 15,000 troops under the command of Shimazu Yoshihiro (島津義弘) were stationed around Sachŏn.

In September 1598, Dong Yiyuan's (董一元) 29,000 Chosŏn-Ming allied forces began to advance, capturing the support castles (支城) and approaching the Japanese castle at Sachŏn. At first, it seemed that the allied forces were superior, but the gunpowder explosion accident caused confusion, and the Ming forces were defeated with heavy losses due to the Japanese counterattack that took full advantage of this opportunity.

Although the explosion accident was decisive, the allied forces were also hampered by a fundamental limitation. Their military strength was insufficient to attack the heavily fortified Japanese castle, and their supplies were inadequate. And the solidarity of the Ming troops, which consisted of combined forces, was weak. Moreover, the cavalry from the northern region was not suitable for attacking the castle. On the other hand, the Japanese fought skillfully and efficiently against the allied forces.

After the defeat in the Battle of Sachŏn, the Ming army lost its will to fight. In this respect, the Battle of Sachŏn was a decisive battle that changed the Ming's attitude in the final stage of the Imjin War.

Keywords : Second Japanese Invasion of 1597, Sachŏn, Sŏnjinli Japanese Castle, Operation Advancing Four-way, Chosŏn-Ming allied forces

